

하나의 ‘납은 사료’가 전해주는 성찰의 메시지 장현자 씨 기증사료를 보면서

이광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한쪽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그 과거를 지양하기 위해 또 투쟁한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변증법이다.

70년대 한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것은 주로 재야명망가들의 운동과 학생운동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운동들이 요구했던 것은 민주주의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최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유신체제가 공개적 독재체제, 혹은 파시스트체제였다는 점

민주화운동과 과거청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과연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이고, 과거청산의 내포와 외연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범주화시키고 그것이 당대에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민주화투쟁은 계

을 감안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최소주의에 국한시키는 발상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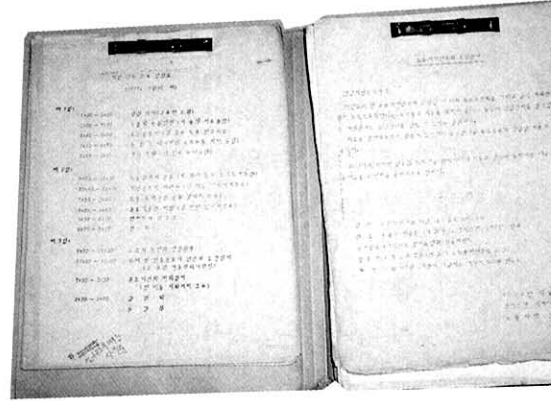
애초 인권이 국가로부터 자기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다양한 사회권을 포함하기에 이른 궤적만을 훑어보아도 최소주의가 의미하는 한계

가 무엇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발상에는 민주주의가 대중의 삶, 그들의 고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들의 저항과 투쟁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투쟁이라는 사실을 소홀히 한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바로 이러한 발상의 영향 때문이다. 나아가 그러한 최소주의적 발상 속에서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욕망과 진정성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이제 살만해졌는데 왜들 저래,' '어느 정도 민주화됐는데, 대강 하지' 라는 '거리두기'가 주류를 형성할 뿐이다.

최소주의의 한계

무엇보다 70년대가 암울했던 것은 인간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유신체제를 파시스트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그 시기는 각 부문에서 이른바 '인정투쟁'이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그 한 귀퉁이에 후미에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저변에 존재하였고 특히 그 가운데 많은 수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그들의 노동과 삶은 더욱 고달팠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가 그랬던 것만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활동하였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흔적들, 사료들 또한 빈약하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사료의 양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질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사료의 질은 자료 자체의 내용과 형태 등에 의해 일차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거기에 투여되는 사후의 보존 및 관리 노력에 의해 제고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을 포함한 기층 민중들의 삶과 투쟁에 대한 그러한 관심은 여전히 주변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과 삶에 대한 흔적들, 기록들은 그 자체로 더욱 소중하다.

이런 맥락에서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도상사 노조의 지부장을 지냈고 이후 노동운동과 각종 사회운동 등에 관여해 왔던 장현자 씨가 기증한 사료들은 매우 귀중하다. 이번에 기증된 사료의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기증자의 이력이 거의 각인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활동 관련 사료, 여성운동 관련 사료, 도시빈민운동 관련 사료, 성남 및 대전지역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 관련 사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과 삶에 대한 소중한 흔적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기증자의 이력이 그렇듯, 노동운동 관련 사료이다. 특히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간집단교육 관련 자료는 흥미를 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행한 이 교육은 주로 농민, 노동, 여성운동 등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현장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장현자 씨의 기증사료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간집단 교육과정 가운데, 특히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 교육

과정에서 행한 한국의 노동운동사와 국제노동운동사 등의 교육 내용을 담은 사료 그리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간집단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과 관련된 사료, 여성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중간집단교육 이수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노동사례연구회의 회칙, 여성해방노동자 기수회 회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 크리스찬 아카데미 활동 관련 사료들도 보인다.

또한 여성노동운동 관련 사료로는 기증자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해 왔던, 혹은 여전히 간여하고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등의 창립선언문, 활동자료, 회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빈민운동 관련 사료는 주로 천주교도시빈민회 관련 자료, 전국도시빈민협의회 관련 자료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더불어 지역공동체에서의 아가방 운영 등 탁아활동 관련 자료들도 눈에 띈다. 또한 지역운동 관련 사료를 보면 성남지역과 대전지역에서 벌어진 노동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 등에 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단행본과 자료집들도 있다.

장현자 씨가 기증한 사료들을 통해, 우리는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참여했던 기층 출신의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그들은 흔히 이야기하듯 임금인상 등 경제투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유신체제가 시민사회의 모든 생기 있는 움직임들을 집어삼키고자 하였던 공격적 독재



체제였던 만큼, 이미 그들의 경제투쟁은 그 자체로 정치투쟁의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당시의 사회정치적인 구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등에 참여하면서, 나아가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열악한 존재상황과 사회정치적인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70년대 기층 출신 활동가들의 노력 엿보여

그런데 그 투쟁은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쳤던 그 상황, 기증자인 장현자 씨를 포함하여 그의 동지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그 상황은 글로벌 신자유주의시대인 지금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 양상은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신빈곤층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사료는 단지 과거를 이야기하기 위해 수집, 보존 및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그것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인 한, 그 사료 속에 간직된 과거의 문제의식은 지금의 현실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운동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내용은 재구성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장현자 씨가 기증한 사료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낡은 것이지만, 지금 우리들이 어디에서 있으며,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 사료관(Archives) 및 기념관 건립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해외자료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